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1. 22.(수) 총 1매(본문1)	
담당 부서 첨단자동차 기술과	담당자	• 과장 이재평, 사무관 김진후, 주무관 최문갑 • ☎ (044) 201-3848, 3849	
보도일시		2017년 11월 23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22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자율주행차 전담조직 발족… “속도감 있는 정책 기대”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제4차 산업혁명과 ‘혁신성장’을 선도할 자율주행차에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한다.

○ 국토교통부는 인프라와 연계한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특별 전담조직(테스크 포스팀, 이하 “TF팀”)을 발족했다.

○ 이 TF팀은 자동차, 도로, 공간정보, 교통 등 자율주행차 관련 모든 정책 기능과 인력을 한 곳에 모아 자동차관리관실 첨단자동차 기술과 내에 두기로 하였다.(민간전문가 3명 포함, 총 10명 구성)

- 또한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**핵심 전문가* 10명** 내외로 구성된 ‘정책자문단’도 운영한다.

* 자동차, 통신, 도로 인프라, 교통체계, 공간정보 분야 업계·학계·연구계

□ 맹성규 제2차관은 “최근 자율주행차의 화두는 자동차 자체뿐만 아니라 인프라와의 연결(Connected Car, 커넥티드 카)이며, 관련 분야를 융·복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”면서,

○ “국토교통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,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와 스마트교통 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※ 관련보도자료 : 「자율주행차와 도로가 만난다면? ‘자율협력주행!’」(17.11.20.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 자동차기술과 김진후 사무관(☎ 044-201-384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